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 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Physical Self-perception, Empathy and Dancing Expressiveness of Dancers

고효문(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생) · 김한별*(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

Xiao-Wen Gao *Korea National Sport Univ.* · Han-Byul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

요약

본 연구는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 간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본추출법인 비확률표본법을 활용하여 중국 소재 대학교 무용학과 소속의 중국무용전공 무용수 54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감정이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매력적 몸매는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체력은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은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력적 몸매는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이 무용표현력 중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매력적 몸매는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인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표현력 중 창의적 표현사고력과 표현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용수의 전반적인 감정이입은 무용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핵심용어: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ncer's physical self-perception between empathy and Dancing Expressiveness. To this end, 541 Chinese dance majors were selected for research by using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in China's university dance department, and data processing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5.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ancer's physical self-perception partially affected empathy. Specifically, dancing expressiveness, condition, and attractive body among physical self-percep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empathy, and physical strength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empathy. In addition, among physical self-perception, dance competence, condition, and physical streng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empathy, and attractive bod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empathy. Second, the dancer's physical self-awareness partially affected the dance expression ability. Specifically, dance competence, condition, and physical strength among physical self-percep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otion expression and external expression among dancing expressiveness. Attractive bod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ovement expression and external expression. In addition, overall physical self-awar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expression thinking ability and expression passion among dancing expressiveness skills. Third, the dancer's overall empath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ancing expressiveness.

Key words : Physical Self-perception, Empathy, Dancing Expressiveness

*hoboko@knsu.ac.kr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나’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과 판단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 책임, 정서, 가치관, 능력, 기술, 외모 등에 대한 인식을 자기지각이라고 한다. 그 특유한 자기 지각과 판단은 자신의 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발달, 개인 성장, 주변 환경과의 조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 신체적 자기지각도 포함되어 있다.

무용은 기술성과 예술적 동작을 통해 작품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활동 영역이어서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더욱 중요하다. 무용수는 무용표현을 위해 몸의 외적 조건, 근육의 능력, 몸의 표현력, 체형 관리 등 자신의 신체를 민감하게 지각한다.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들은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수의 사회적 태도, 심리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전미애, 2019; 신예라, 김예슬, 여인성, 2020; 권순재, 2011),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서지능과 자기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최현서, 2020; 차여진, 2015). 또한, 무용수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무용 몰입, 공연자신감, 자기효능감 등도 신체적 자기지각에 영향을 받는다(홍연지, 지준철, 김승철, 김지윤, 2014; 신예라 등 2020; 최현서, 2020; 차여진 등, 2015; 이화석, 2015). 즉,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는 무용수의 수행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자기지각은 수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용 수행은 무용 이미지를 만들어 관객에게 무용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무용수가 작품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적 활동, 문화적 이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용수의 ‘자아’를 무용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이입(empathy)은 무용수가 극 중 역할의 감정과 행위 동기를 느끼고 캐릭터에 진입하는 심리적인 활동이다. 이 심리적 활동을 실현하는 전제는 무용수 자신의 무용능력에 대한 유능감, 신체적 조건, 컨디션 인식 등이 있다. 무용 작품을 표현할 때 무용수는 작품 속의 “나”에 대해 감지하고 그에 따른 반응과 소통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이 상황에서 무용수가 먼저 신체에 대해 충분히 지각해야 ‘자아’를 ‘무용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용수가 작품 속 인물, 문화적 이미지 등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풍부한 상상력과 표출 욕구도 생겨나며 이는 율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무용표현력은 무용수의 감정이 기술성과 예술성을 갖춘 몸짓으로 표출되어 작품 스토리를 창의적으로 나타내서 관객과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무용수는 체력, 신체 조건, 고도의 동작과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와 같은 풍부한 상상력, 특정한 감정 표현으로 동기와 의욕을 발산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무용표현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무용수의 감정이입이 무

용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박근태, 2020), 몰입은 그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혀졌다(홍연지, 강현우, 2016). 그리고 무용표현력은 무용정서, 무용 정서지능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우태경, 2018; 김보배, 2021). 이를 통해, 무용수의 무용표현력은 정서나 감정과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용수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완전한 몰입상태를 유지해야 최고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무용 작품에서 무용수들의 감정이입은 무용표현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3가지 요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같이,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몰입과 연관성이 있고 무용몰입은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감정이입은 무용수가 몰입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나라, 이연수, 2013; 홍연지, 강현우,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자기지각과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론적 특성으로 보면 감정이입은 무용수가 작품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고 무용수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면, 극 중 역할에 보다 더 잘하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무용수의 무용표현력은 내적 열정, 창의성과 동작 기술이 융합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무용수의 신체를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표현력의 바탕은 신체적 자기지각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용수가 자기 신체에 대한 지각이 부족하다면 몸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감정이입과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대에 서는 무용수는 결국에 이 3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즉, 무용수가 작품을 표현하는 데 이 3가지 요인은 차례로 나타나는 과정이면서 3가지 요인이 상호작용 하기도 하는데 이를 인지하는 것은 무용수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무용수의 심리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무용수의 심리적 현상의 발전원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무용수의 최종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용수의 일부 심리적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이론적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무용수의 감정이입은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표본추출법 중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통해, 중국 소재의 대학교 무용학과 중국무용전공 무용수 54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성 무용수는 108명(20%), 여성 무용수는 433명(80%)이다. 같은 지역문화로 인한 통계 결과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 북방, 남방, 서남부, 동북부 등의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무용활동지역은 광서성은 242명(44.7%), 광동성 114명 (21.1%), 귀주성 61명(11.3%), 길림성 21명 (3.8%), 내몽골자치구 17명 (3.1%), 기타 86명 (15.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연간 공연 평균 횟수는 0~5회 422명 (78.0%), 5~7회 83명(15.3), 7회 이상 36명 (6.7%)로 나타났다. 무용경력은 0~3년 219명(40.5%), 3~5년 159명(29.4%), 5년 이상 163명(30.1%)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전 일반고등학교에 속해 있었던 대상자는 493명 (91.3%), 예술학교 33명 (6.1%), 기타 14명 (2.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8	20.0
	여성	433	80.0
나이	16-20 살	390	72.1
	20-25 살	145	26.8
	25살이상	6	1.1
지역	광서성	242	44.7
	광동성	114	21.1
	귀주성	61	11.3
	길림성	21	3.8
	내몽골자치구	17	3.1
	기타	86	15.9
공연 횟수 (1년 평균)	0-5 회1	422	78.0
	5-7 회2	83	15.3
	7회 이상3	36	6.7
무용경력	0-3년1	219	40.5
	3년-5년2	159	29.4
	5년이상3	163	30.1
대학 전 소속	고등학교	494	91.3
	예술학교	33	6.1
	기타	14	2.6
합계		541	100.0

2. 조사도구

1)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는 중국무용수의 감정이입, 무용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체적 자기지각의 측정에는 Fox와 Corbin(1989)이 개발하고, 유진, 소호성(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요인으로는 매력적인 몸매, 체력, 신체적 컨

디션, 무용 유능감이 각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응답 형태로 설정되어있다. 무용 감정이입 질문지는 이한석(2010)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감정이입의 역할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홍연지(2016)가 전문적인 직업무용수에 맞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인지적 감정이입과 정서적 감정이입 총 2개 하위요인 각각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무용 표현력 질문지는 강혜원, 이용현, 박승하(2011)가 탐색한 무용표현력 구성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동작 표현기술 5문항, 창의적 사고력 3문항, 외적 표출능력 4문항, 표현 열정 5문항 총 17개 문항 내용으로 구성하며 응답 형태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척도 번역 절차

연구자가 원본과 기존의 질문지를 참조하면서 번역하였다. 중국의 문화적 맥락과 맞추기 위해 중국어와 한국어 능력이 모두 가지게 된 중국무용전문가, 언어전문가와 함께 번역본 문항들을 수차례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번역본 문항의 명료성을 검사와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중국대학교 무용전공자 3명을 예비대상으로 수정된 번역본 문항에 대한 명료성과 이해도를 관찰하였으며, 그 무용수들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종 번역본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조사도구 및 구성내용		문항수	문항형태
인구 통계학적 변인	- 성 별	6	명목 척도
	- 나 이		
	- 무용활동지역		
	- 공연 횟수		
독립 변인	신체적 자기지각	20	
	- 매력적인 몸매		
	- 체력		
독립 변인	감정이입	10	5점 척도
	- 신체적 컨디션		
	- 무용 유능감		
종속 변인	무용표현력	17	
	- 인지적 능력		
	- 정서적 능력		
	- 동작표현력		
합계	- 창의적 표현사고력	53	
	- 표현열정		
	- 외적표출력		

3.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 재량이 .5이하인 문항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5이상 높은 적재량을 보이는 항목과 연구의 개념이 다른 요인에 높은 적재량을 보이는 문항 등 타당성이 결여된 항목은 제거하여서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 또한,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의 요인들과 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내용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설문지	구성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자기지각	매력적 몸매	5	.928
	체력	5	.930
	신체적 컨디션	3	.879
	무용 유능감	3	.879
감정이입	정서적 감정이입	5	.912
	인지적 감정이입	3	.855
무용표현력	표현열정	5	.888
	창의적 표현사고력	3	.860
	외적표출력	3	.890
	동작표현력	2	.880

신체적 자기지각 척도 측정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결과, 20개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상이한 요인에 높은 적재량을 보였고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문항(2번, 3번, 6번, 8번)을 제거하였다. 16개 측정문항의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측도 .935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문항 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5047.252$ ($df=78$, $p<.001$)로 유의하며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문항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8.1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현열정' 요인으로 분산 설명력은 26.346%였고, '창의적 표현사고력' 요인으로 분산 설명력은 19.241%, '외적표출력' 요인 분산 설명력 18.508%, '동작표현력' 요인 분산 설명력 14.005%로 각각 나타나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무용표현력 척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신뢰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α 계수는 표현열정 요인은 .888, 창의적 표현사고력 요인은 .860, 외적표출력 요인은 .890, 동작표현력 요인은 .880으로 각각 나타나 요인들이 내적 일관성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정이입 척도 측정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결과, 10개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상이한 요인에 높은 적재량을 보였고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 2개 문항(1번, 2번)을 제거하였다. 8개 측정문항의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값이 .887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문항 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2856.385$ ($df=28$, $p<.001$)로 유의하며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문항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6.01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감정이입'의 설명력은 45.167%였고, '인지적 감정이입'은 30.845%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척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신뢰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적 감정이입은 .912, 인지적 감정이입은 .855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 척도 측정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결과, 17개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상이한 요인에 높은 적재량을 보였고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 4개 문항(1번, 2번, 3번, 14번)을 제거하였다. 13개 측정문항의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값이 .934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문항 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5047.252$ ($df=78$, $p<.001$)로 유의하며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문항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8.1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현열정' 요인의 설명력은 26.346%였고, '창의적 표현사고력'은 19.241%, '외적표출력'은 18.508%, '동작표현력'은 14.005%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 척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신뢰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α 계수는 표현열정은 .888, 창의적 표현사고력은 .860, 외적표출력은 .890, 동작표현력은 .880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을 구성하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에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값 ($\alpha=.05$)을 산출하였다.

셋째, 중국무용수의 성별, 1년 공연 횟수, 무용경력에 따른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의 관계

1) 상관관계분석

표 7. 신체적 자가지각,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인지적 감정이입	.563**	.419**	.502**	.638**	.607**										
정신적 감정이입	.570**	.536**	.628**	.573**	.713**	.582**									
동작표현력	.516**	.510**	.517**	.481**	.612**	.494**	.681**								
창의적 사고력	.457**	.429**	.536**	.456**	.546**	.468**	.621**	.687**							
표현열정	.495**	.395**	.527**	.560**	.602**	.642**	.582**	.623**	.618**						
외적표출력	.508**	.483**	.597**	.461**	.623**	.503**	.714**	.728**	.695**	.678**					
무용유능감	.486**	.428**	.482**	.589**	.615**	.600**	.631**	.620**	.603**	.693**	.701**				
컨디션	.426**	.419**	.483**	.492**	.577**	.487**	.585**	.597**	.589**	.616**	.674**	.694**			
매력적 몸매	.200**	.291**	.345**	.299**	.380**	.238**	.468**	.436**	.510**	.344**	.500**	.473**	.608**		
체력	.315**	.372**	.430**	.326**	.432**	.328**	.546**	.543**	.600**	.469**	.567**	.512**	.598**	.606**	1

** $p < .01$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측정 변수 서로 간의 관계 정도와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80 이상)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이 가능하다. 중국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2)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이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이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514, p < .001$), 컨디션($\beta = .199, p < .001$), 매력적 몸매

표 8. 중국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이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p
(상 수)	1,745	.131		13,366	.001***
인지적 무용유능감	.511	.048	.514	10,735	.001***
감정 컨디션	.191	.052	.199	3,684	.001***
이입 매력적 몸매	-.112	.035	-.147	-3,176	.002**
체력	.031	.041	.035	.756	.450
$R^2 = .382, F = 82,817, p < .001$					
(상 수)	.814	.121		6,710	.001***
정서적 무용유능감	.390	.044	.387	8,810	.001***
감정 컨디션	.141	.048	.145	2,936	.003**
이입 매력적 몸매	.047	.033	.062	1,451	.147
체력	.200	.038	.224	5,268	.001***
$R^2 = .480, F = 123,783,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력적 몸매($\beta = -.147, p < .01$)가 감정이입의 하위요인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의 하위요인 인지적 감정이입에 대한 신체적 자가지각의 전체 설명 변량은 38.2%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387, p < .001$), 컨디션($\beta = .145, p < .01$), 체력($\beta = -.224, p < .001$)이 감정이입의 하위요인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감정이입의 하위요인 인지적 감정이입에 대한 신체적 자가지각의 전체 설명 변량은 48.0%로 나타났다.

3)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무용수의 신체적 자가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과 같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352, p < .001$), 컨디션($\beta = .213, p < .001$), 체력($\beta = .238,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동작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동작표현력에 대한 신체적 자가지각의 전체 설명 변량은 47.3%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309, p < .001$), 컨디션($\beta = .133, p < .01$), 매력적 몸매($\beta = .100, p < .05$), 체력($\beta = .302,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신체적 자가지각의 전체 설명 변량은 49.7%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501, p < .001$), 컨디션($\beta = .274, p < .001$), 매력적 몸매($\beta = -.142, p < .001$), 체력($\beta = .135,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표현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표현열정에 대한 신체적 자가지각의 전체 설명 변량은 53.1%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가지각의 하위요인 중 무용유능감($\beta = .412, p < .001$), 컨디션($\beta = .257,$

$p < .001$), 체력($\beta = .178,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외적표출력에 대한 신체적 자기지각 전체 설명 변량은 58.3%로 나타났다.

표 9.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p	
동작 표현력	(상수)	.484	.134		3.605	.001***
	무용유능감	.390	.049	.352	7.969	.001***
	컨디션	.227	.053	.213	4.278	.001***
	매력적 몸매	-.004	.036	-.005	-1.11	.912
	체력	.234	.042	.238	5.572	.001***
$R^2 = .473, F = 120.336, p < .001$						
창의적 사고력	(상수)	.692	.118		5.851	.001***
	무용유능감	.308	.043	.309	7.144	.001***
	컨디션	.128	.047	.133	2.730	.007**
	매력적 몸매	.076	.032	.100	2.397	.017*
	체력	.267	.037	.302	7.234	.001***
$R^2 = .497, F = 132.317, p < .001$						
표현 열정	(상수)	1.062	.106		10.043	.001***
	무용유능감	.463	.039	.501	12.016	.001***
	컨디션	.243	.042	.274	5.813	.001***
	매력적 몸매	-.100	.028	-.142	-3.516	.001***
	체력	.111	.033	.135	3.356	.001***
$R^2 = .531, F = 151.624, p < .001$						
외적 표출력	(상수)	.267	.113		2.352	.019*
	무용유능감	.433	.041	.412	10.476	.001***
	컨디션	.260	.045	.257	5.792	.001***
	매력적 몸매	.033	.031	.041	1.084	.279
	체력	.166	.035	.178	4.684	.001***
$R^2 = .583, F = 187.588,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4) 무용수의 감정이입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무용수의 감정이입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하위요인 중 인지적 감정이입($\beta = .147, p < .001$), 정서적 감정이입($\beta = .595,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동작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동작표현력에 대한 감정이입의 전체 설명 변량은 47.8%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하위요인 중 인지적 감정이입($\beta = .161, p < .001$), 정서적 감정이입($\beta = .528,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감정이입의 전체 설명 변량은 40.3%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하위요인 중 인지적 감정이입($\beta = .458, p < .001$), 정서적 감정이입($\beta = .316,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표현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표현열정에 대한 감정이입의 전체 설명 변량은 47.8%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하위요인 중 인지적 감정이입($\beta = .131, p < .001$), 정서적 감정이입($\beta = .638, p < .001$)가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표현력의 하위요인 외적표출력에 대한 감정이입의 전체 설명 변량은 52.2%로 나타났다.

표 10. 무용수의 감정이입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p	
동작 표현력	(상수)	.445	.148		3.009	.003**
	인지적 감정이입	.164	.043	.147	3.847	.001***
	정서적 감정이입	.654	.042	.595	15.551	.001***
$R^2 = .478, F = 246.616, p < .001$						
창의적 사고력	(상수)	.820	.143		5.753	.001***
	인지적 감정이입	.161	.041	.161	3.920	.001***
	정서적 감정이입	.522	.041	.528	12.879	.001***
$R^2 = .403, F = 181.424, p < .001$						
표현 열정	(상수)	.895	.123		7.247	.001***
	인지적 감정이입	.426	.036	.458	11.962	.001***
	정서적 감정이입	.290	.035	.316	8.245	.001***
$R^2 = .478, F = 246.341, p < .001$						
외적 표출력	(상수)	.462	.134		3.433	.001***
	인지적 감정이입	.139	.039	.131	3.582	.001***
	정서적 감정이입	.666	.038	.638	17.406	.001***
$R^2 = .522, F = 293.592,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한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용유능감, 컨디션, 매력적 몸매는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무용수가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무용유능감, 몸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 컨디션, 자신의 몸매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매력적 몸매라는 3가지 심리적 요인은 몸의 전반적인 표출을 중요시하는 무용상황에서 무용수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자신감이 향상되면 무용수는 무용에 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작품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자 하며 더 쉽게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다. 즉, 무용수의 무용유능감과 신체적 컨디션, 매력적 몸매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무용수가 무용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의 감정과 문화적 이미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지적 감정이입이란 무용수가 작품 내용의 감정과 사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무용수가 무용유능감, 신체적 컨디션, 매력적 몸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더 잘 발견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재일(2022)과 박상섭(2019)은 아마추어 골퍼와 생활체육 검도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그들의 정서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정서적 동기란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인지적 감정이입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신체적 자기지각 중 체력은 인지적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체력이란 무용을 수행할 때 무용수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내는 힘으로 정의되며, 무용수가 체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더라도 무용작품 속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무용수의 작품에 대한 인지적 감정이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신체 훈련과 체형관리를 통해 좋은 신체적 컨디션과 매력적인 몸매를 갖게끔 하고, 무용 동작에 대해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무용 활동에 긍정적 신체적 자기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은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공통된 체험을 말한다. 즉, 무용수의 '자아'가 완전히 무용작품 속 역할로 변하는 심리적 활동이다. 무용수가 자신의 체력에 자신감이 있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며, 무용을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된다면, 작품의 역할과 통일된 정서적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혜진(2012)은 무용수의 감정이입과 작품 역할에 대한 몰입은 큰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몰입은 감정이입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홍연지 등(2014), 신예라 등(2020), 박순희(2021)는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순재, 전형상(2012)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운동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자기지각 중 매력적 몸매는 정서적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몸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면 자신감은 높을 수 있지만, 무용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감지는 작품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용수가 체력 훈련과 무용 훈련을 꾸준히 하고 무용 활동에 참가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용수가 작품을 표현할 때 정서적으로 감정이입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무용수가 긍정적인 신체적 자기지각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이 무용표현력 중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무용수가 자신의 체력, 신체적 컨디션, 무용유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는, 남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도전적인 동작이라도 흐름을 끊지 않도록 연습했을 것이다. 즉, 선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무용수가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야 그들이 자신의 체력, 신체적 컨디션, 무용유능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작표현력은 무용수가 동작 수행 시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리듬감과 동작의 유창성을 발휘하는 능력이고, 외적표출력은 무용수의 동작에 대한 이해도와 동작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은 무용수가 지속적인 무용연습과 훈련을 통해 동작 처리와 무용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상관이 있다. 따라서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은 무용표현력 중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매력적 몸매는 동작표현력과 외적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몸매는 무용수가 자신에 몸매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나 미적 자신감으로 동작표현력과 외적표출력과 관련이 있는 무용수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용수의 전반적인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표현력 중 창의적 표현사고력과 표현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높다면 무용수는 미적 몸매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동작을 수행할 때 필요한 체력과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무용수행을 할 때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임한다. 무용표현력 중 표현열정과 창의적 표현사고력은 무용상황에서 무용수가 더 많이 연습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무용에 관해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능력이 높을 수 없다. 따라서 무용수의 표현열정과 창의적 표현사고력은 무용수가 높은 신체적 자기지각을 가지고 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셋째, 무용수의 인지적 감정이입과 정서적 감정이입은 무용표현력 중 동작 표현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열정, 외적표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용수의 감정이입은 전반적인 무용표현력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입은 타인의 정서 상태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함으로써 타인과 함께 공감 형성되는 능력이다. 무용의 감정이입은 무용수가 자기와 작품 간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며, 자기와 작품의 감정적 경험을 동일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표현력은 무용수의 상상력, 창의력, 기술 수행력이 어우러져 캐릭터를 표현하고 인물을 부각시키는 능력이다. 이론적으로 감정이입과 무용표현력은 작품을 출발점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체험과 표현을 중심으로 하기에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감정이입과 무용표현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박근태(2020)는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의 감정이입능력은 무용표현력의 무용성취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감정이입은 신체표현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홍영지, 강현우(2016)도 직업무용수의 감정이입이 무용표현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몰입은 매개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무용작품을 표현할 때, 무용수는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 사상, 문화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심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작품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줄거리에 따라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용수는 캐릭터의 심리적 표현을 중심

으로 작품의 감정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무용표현력이 뛰어난 무용수들은 타인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감정 전달 능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수는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아와 캐릭터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캐릭터와 감정이 일치하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은 무용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무용수가 감정 전달 능력을 높이면 동작의 창의성, 감정적 측면이 더 풍부해지고 신체적 언어를 폭넓게 사용해서 심오한 의미와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 즉, 무용수의 감정이입을 통해 무용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감정이입 및 무용표현력 간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본추출법에서 비확률표본법을 활용하여 중국 소재의 대학교 무용학과 중국무용전공 무용수 54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감정이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자기지각 중의 무용유능감, 컨디션, 매력적 몸매는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체력은 인지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은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력적 몸매는 정서적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무용표현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자기지각 중 무용유능감, 컨디션, 체력이 무용표현력 중 동작표현력과 외적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매력적 몸매는 동작표현력과 외적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인 신체적 자기지각은 무용표현력 중 창의적 표현사고력과 표현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용수의 전반적인 감정이입은 무용표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과 관련된 무용종류는 단일 종류나 변인과 관련된 특정종류 대상이 아닌 중국무용전공이라는 큰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중국무용전공자들의 심리적 변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 자기지각, 감정이입, 무용표현력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기초 변인을 고려하여 요인들의 수준별 차이를 검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와 같이 남성무용수는 여자무용수보다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으므로 대표성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무용수를 더 많이 표집하고 연구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이용현, 박승하(2011). 무용표현력의 구성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6):249-259.
- 권순재, 전형상(2012). 생활체육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운동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2): 87-96.
- 김보배(2021). **무용전공 여대생의 정서지능과 무용표현력의 관계에서 무용몰입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나라, 이연수(2013). 전문무용수의 공감능력과 감정이입능력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9: 109-123.
- 박근태(2020).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의 감정이입능력이 무용정서 및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56, 97-116.
- 신예라, 김예슬, 여인성(2020). 스트릿 댄스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9(3):263-274.
- 우태경(2018). **서번트 리더십이 무용학습자의 무용정서 및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진, 소호성(1998). 신체적 자기 - 지각 프로파일의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2):45-62.
- 이화석(2015). 무용전공 예술고등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자기효능감 및 공연자신감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191-204.
- 전미애(2019). 대학무용 전공생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정서지능 및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지*, 77(4): 255-272.
- 최현서(2020).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무용몰입과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재일(2022). 아마추어 골퍼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골프학회지*, 16(2): 157-166.
- 차여진(2015). **무용전공대학생의 공연자신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신체적 자기지각의 중재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여진, 윤홍한, 이정률, 이동현(2015).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정서지능과 신체적 자기지각이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163-163.
- 박상섭(2019). 생활체육 검도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운동지속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21(4): 125-138.
- 박선희(2021). 무용전공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공연몰입이 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9(1): 691-703.
홍혜전(2012). 전문무용수의 무용경력과 감정이입 및 작품역할몰입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7: 81-93
홍연지, 지준철, 김승철, 김지윤(2014).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무용몰입 및 공연자신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53(2):457-467

홍연지, 강현우(2016). 직업무용수들의 감정이입 능력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무용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33(4): 47-61.
홍연지(2016). 직업무용수들의 감정이입 능력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무용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